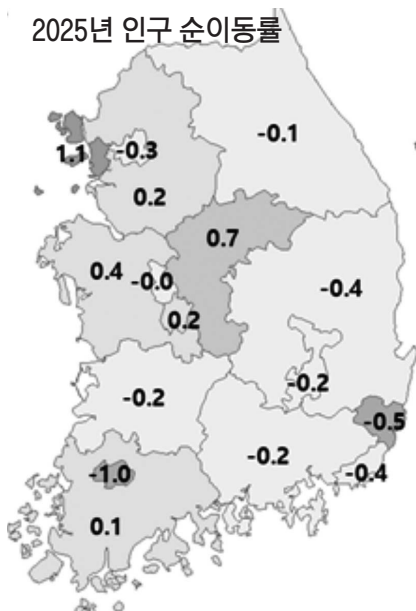


일자리 찾아 타지로… 광주 인구 순유출률 ‘최고’



작년 30대 -1.6% 등 ‘-1.0%’
10세 미만·80세 이상만 늘어
전남도 20대이하 순유출 지속

광주와 전남에서 30대 이하 청년층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며 호남권 인구 기반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연간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지난해 인구 순유출률은 -1.0%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80세 이상(0.5%)과 10세 미만(0.1%)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유입인구보다 유출이 더 많았다.

특히 광주는 2030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다. 광주 30대 순유출률은 -1.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역시 -3.0%의 순유출 흐름을 보이며 청년층 전반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20대 인구 유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3.9%에 달했다.

지난해 타 지역으로 이동한 1만3700명 중 1만1100명이 직업과 관련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청년층 감소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대 순유출률이 -3.1%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으며 10대 역시 -0.7%

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다만 30대가 0.5%의 순유입을 보이는 등 전체 인구 기준으로는 소폭 순유입(0.1%)을 유지했지만, 청년층 유출은 뚜렷했다.

전남은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간 이동을 보면 광주에서 빠져나간 청년층 상당수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으로 이동한 인구 역시 광주에서 전입된 비중이 컸지만, 전남 청년층 전체 규모를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국적으로도 20대와 30대의 이동률은 각각 24.3%, 20.4%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성별 이동률은 남자 12.4%, 여자 11.6%로 남자의 이동률이 여자보다 0.8%p 더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이동률 성비(여자 100명당)는 106.5명으로 전년대비 0.8명 증가했다.

연령별 이동률 성비는 40대가 110.3명으로 가장 높고, 80세 이상이 73.5명으로 가장 낮았다.

전입 사유로는 주택이 33.7%로 가장 많았고, 가족(25.9%), 직업(21.4%)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내 이동자 수는 총 611만 8000명으로 전년대비 2.6%(16만6000명)가 감소하고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도 12.0%로 전년대비 0.3%

p 줄었다.

전체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은 64.3%(393만2000명), 시도간 이동은 35.7%(218만6000명)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시도내 이동은 4.3%(17만 7000명) 감소하고, 시도간 이동은 0.5%(1만1000명) 증가로 조사됐다.

시도내 이동률은 7.7%로 전년대비 0.3%p 감소했고 시도간 이동률은 4.3%로 전년과 유사했다.

권역별로는 순유입이 가장 많은 곳은 3만8000명이 유입된 수도권이었고, 영남권은 3만9000명이 빠져나가 순유출이 가장 많았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전남도는 29일 신안군 ㈜신안천사김에서 'K-전남김'의 국내 코스트코 전 매장 판매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K-전남김, 설 명절 앞두고 국내 코스트코 입점

내달 18일까지 선물용 1만3000세트 판매 목표

미국 등 해외-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추진도

전남도가 자체 프리미엄 김 브랜드 ‘K-전남김’을 앞세워 국내 대형 유통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29일 신안군 ㈜신안천사김에서 ‘K-전남김’의 국내 코스트코 전 매장 판매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과 권동혁 ㈜천사김 대표, 이우승 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대형 유통채널 진출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에 선적된 ‘K-전남김’은 전국 코스트코 20개 매장에서 설 명절 선물세트로 판매된다. 판매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

지로, 전남도는 1만3000세트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K-전남김’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 김 브랜드 육성사업’의 대표 성과물이다. 전남산 원초만을 사용하고 위생·품질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 프리미엄 브랜드로 차별화했다.

단순 원물 공급을 넘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남 김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전략이 반영됐다.

앞서 ‘K-전남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외 시범 판매를 통해 943세트를 판매하며 상품성과 소비자 반응을 검

증반었다. 이를 토대로 이번 국내 코스트코 전 매장 입점이 성사되면서 안정적인 대형 유통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

전남도는 이번 1차 입점을 계기로 유통망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6년을 목표로 미국 등 해외 코스트코 매장 입점과 함께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해외 유통사와 협력해 국가별 소비 트렌드에 맞춘 패키지를 개발하고, 단계적인 브랜드 마케팅도 병행할 방침이다.

2025년 전남 김 수출액은 4억3000만 달러로, 전국 김 수출액 11억3000만 달러의 38.1%를 차지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김 수출 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 역량 강화 교육

농협 광주본부는 29일 본부 대강당에서 관내 농협 신용카드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해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상품 판매 기법에서 벗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는 고객 중심 상담 프로세스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이철호 본부장은 “AI 기술에 인간적 감성을 결합한 차별화된 마케팅이 우리 농협의 경쟁력”이라며 “농심을 살피는 마음이 곧 고객의 마음을 얻는 길인 만큼, 현장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금융 전문가가 돼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에 앞서 참석자 전원은 ‘농심전심 운동’ 확산을 위한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코스피, 5200 돌파 마감…코스닥도 2.7% ↑

개인 1조6000억원 순매수…기관 코스닥 2조 매수

코스피가 29일 사상 처음으로 5200선을 넘었다. 코스닥도 3% 가까이 상승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2.61p(1.40%) 오른 5243.42로 출발해 50.44p(0.98%) 오른 5221.25로 거래를 종료했다.

지수는 개장 직후 5252.61까지 치솟았으나 곧 급락하기 시작해 오전 한때 5073.12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에는 반대로 급격히 하락분을 만회하더니 오후 들어 52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1조6175억원을 매수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1조 5097억원을 순매도하고 기관도 1502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4895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과 기관은 1410억원과 3628억원 매수 우위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9.91p(1.76%) 오

른 1153.43으로 시작해 30.89p(2.73%) 급등한 1164.41로 마감했다.

지수는 한때 1108.43까지 밀렸으나 이후 빠르게 하락분을 만회한 뒤 상승세로 전환했다.

연일 이어진 불장에 코스닥의 연초 이후 상승률은 이날 종가 기준 25.8%로 코스피(23.9%)를 제치고 세계 주요국 중시 가운데 1위로 올라섰다.

이어 3위는 튀르키예(19.06%), 4위는 브라질(16.63%), 5위는 대만(12.50%) 순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2조422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은 지난 23일부터 5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대거 순매수를 진행, 이날까지 포함 9조6000억원가량을 순매수했다.

외국인도 이날 2256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홀로 2조1280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광주전남 상생 ‘통합특별시’ 응원 통장 출시

광주은행, 6월 30일까지

‘1인1계좌갖기’ 우대금리

강기정 시장 1호 가입자

6개월간 최고 연 0.30%p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을 응원하고 지역 상생 협력과 균형발전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 ‘통합광주전남 특별시 사랑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1호 가입자로 나서 광주·전남 통합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통합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에 힘을 보탤다.

통합광주전남 특별시 사랑통장은 광주·전남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 통합과 균형발전에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이다.

해당 통장 가입 고객은 별도의 조건 없이 전자금융(인터넷·폰·스마트뱅킹) 이체 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ATM) 현금 인출 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통장 출시와 함께 오는 6월 30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인 1인1계좌 갖기 우대금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중 해당 통장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최고 연 0.30%p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우대금리는 광주·전남 거주 고객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박대하 광주은행 신성장전략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 0.10%p, 광주·전남 통합 응원 메시지 작성 고객 연 0.10%p, 지역 내 소상공인 고객 연 0.10%p로 구성되며, 기본금리 연 0.01%를 포함해 최고 연 0.3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월 29일 세전 이자율 기준)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ESG 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당 통장을 통장 미발행 방식으로 신규 개설할 경우 기부금을 적립해 지역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상품 가입은 가까운 영업점 방문은

몰론 스마트뱅킹 및 모바일뱅크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통합광주전남 특별시 사랑통장”은 지역 정책에 대한 공감이 금융을 통해 일상 속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지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확대하며 지역 발전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900억 투입

올해 총 2700억 지원…업체당 최대 3억

제조업-벤처·창업기업 등 대상 이원화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2700억원의 융자 자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투입한다.

광주시는 우선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으로 19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중점산업 창업·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구분해 대상별로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배정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중점산업 창업·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창업기업, 업력 10년 이하의 벤처기업 또

는 수출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은 광주은행이 납부한 지원금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연 0.5%p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급 은행은 광주은행으로 한정된다.

지원 한도는 두 자금 모두 업체당 최대 3억원이다.

광주시 인증을 보유한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과 같은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2년 거주 일시상환이다. 광주시는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우대기업

은 1%를 추가로 보전한다.

또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이자 1%를 추가 지원해 우대기업이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최대 4%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진흥은행일자리재단이 관리하는 기업융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재단 심사를 거쳐 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12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홍나순 시 창업진흥과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이차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